

우리나라 여성사연구의 서지적 고찰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studies of history of Korean women

유 소 영 (Soyoung Yoo)*

<목 차>

1. 서론	4. 연구자상황
2. 여성사연구의 목적과 과제	5. 요약 및 결론
3. 여성사연구의 분석	

초 록

고대로부터 일제 말기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여성사 연구문현을 수집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현은 2003년 말까지 생산된 369건의 도서, 학위논문, 학술지기사(전자문현포함)이다.

분석결과, 연구자들은 여성의 지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 예술분야와 함께 선호하는 연구 주제였다. 그 외에 여성의 활동, 생활, 인물, 종교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점차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의 여성연구가 가장 많고 고려시대의 여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적었다.

연구문현의 상당수가 단선적 서술형식의 연구였고 주장이 강한 여성해방운동사적 연구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한 시대와 다른 시대 간의 비교연구 또는 국외의 여성사와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었다.

주제어 : 한국여성사, 한국여성사 통계

Abstract

The literature on Korean women's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the end of the Japanese occupation is collected and analyzed. The total number of documents treated in this paper is 369. The documents, all written by 2003 include books, theses for master's and Ph. D. degrees, journal articles, and digital papers on the Internet home pag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favored themes of the researchers were women's status, education, and arts. Other subjects include women's activities, daily life, biographies, and religion. The most preferred period was the Chosun Dynasty and the least preferred period was the Koryo Dynasty. The usual method of these documents is narrative. There are few attempts to compare women's history of Korea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Key Words : Korean women's history, statistics of Korean women's history,

* 건국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soyoung@kku.ac.kr)

· 접수일 : 2004. 5. 28 · 최초심사일 : 2004. 6. 11 · 최종심사일 : 2004. 6. 11

1. 서 론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대 이후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초점을 둔 여성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명제는 자연히 역사적으로 각 시대의 여러 사회계층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하였는가, 또 그 여성들의 지위가 그러한 위치에 머물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천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제는 여러 학문의 학제적인 관련 하에 여성을 연구하는 여성학자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사료가 풍부한 정치 제도사 중심의 역사 서술이나 근대 여성사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크게 기여한 생활사 부분의 연구는 사료가 부족한 관계로 그 연구가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대는 바야흐로 민주주의가 숙성하여 권력에서 멀고 부(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살피고 그들의 안녕을 돌보는 것이 발전한 사회의 의무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정치 참여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 경제계 등 외적 활동이 남성과 어깨를 겨루게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역사 기술에서 도와시 되고 역사라는 발자취 속에 보이지 않는 족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조상, 여성의 역사를 더듬어 그들의 삶의 영욕과 애환을 밝히 세상에 꽂아보이는 것이 순리로운 순서가 된지 이미 오래되어 30여년이 지났다.

이러한 차제에 그간의 여성사 연구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그 전모를 서지적 분석을 통하여 조망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연구와 소홀하였던 부분, 그리고 그 연구들의 특성과 동향을 시대별, 분야(주제)별로 가늠하여 우리나라 여성사 연구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이는 정보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학정보학 연구의 임무이기도 하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드물며 연구문헌 전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

1996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논문으로 1876년부터 1945년까지의 근대 여성사연구문헌을 수집하여 통계화한 연구가 있기는 하다.¹⁾ 그러나 이 논문은 서문의 설명에 의하면 중복문헌을 모두 계산에 넣고 있으며 부록의 문헌 리스트는 연구문헌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기사도 포함하고 있다. 학위논문을 대략 요약하여 학술지에 실린 경우라든가, 어떠한 추가나 변경 사항도 없이 두 번째로 다른 잡지에 실린 경우는 중복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심지어

1) 이옥석, *한국근대여성사에 관한 연구사 : 1876~1945년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는 같은 교수의 지도로 저술된 학위논문조차 제목의 단어표현만을 바꾸고 시종일관 베껴낸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본 논문에서는 후에 표절한 논문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드물기는 하나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본 연구와 같은 서지적 연구가 발표되어 학계에 전해짐으로써 연구인의 양식의 경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92년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 전근대편”²⁾과 1994년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 근대편”³⁾이라는 제목의 리뷰를 한국여성연구회에서 *여성과 사회* 3호와 5호에 각각 발표하였다. 전근대편은 원시 고대에서 조선까지를 시대별로 나누고 각 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 즉 혼인, 가족제도와 친족, 여성노동, 여성관 및 이데오로기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전근대편에서는 연구문헌의 리뷰적 성격이 비교적 약하나 근대편은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 간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대에 대한 연구를 전근대편과 비슷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였다. 이 두 편의 리뷰는 여성사연구를 처음 시도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리뷰이며 그 후 여성사 연구는 한층 크게 도약하였다.

필자는 삼국이전 고대사회로부터 1945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를 다룬 모든 여성사에 관한 연구를 통계, 분석하여 도표화 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사 연구의 기준의 동향과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 조망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연구의 방법

연구문헌의 수집, 연구문헌수집의 범위, 연구절차, 통계 및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연구문헌수집방법:

연구문헌의 수집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교육학술원의 석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학술지 기사 데이터베이스 및 단행본 목록,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역사학회에서 수집한 문헌리스트, 국내 유수 대학 도서관목록 등을 검색하여 여성사를 다룬 연구문헌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 문헌들의 완전한 서지정보와 목차, 초록, 인용 및 참고문헌, 서론, 결론 부분을 복사하였다.

연구문헌수집범위:

연구대상 시대 범위는 고대로부터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기까지로 하고 문헌 발생 범위

2)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전근대편,” *여성과 사회*, 3(1992, 4), pp.315-344.
 3)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근대편,” *여성과 사회*, 5(1994, 6), pp.297-327.

는 2003년에 출판된 문헌까지로 하였다. 여성사 관련 문헌은 한국여성학회와 이화여대를 비롯한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에 설립되어있는 연구소 발행 잡지들이 주된 출판창구가 되고 있고 역사관련 학술지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발표학술지의 분포가 넓지 않은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사 관련문헌이 어떤 방법으로 출판되었는가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문헌을 수집하였다. 연구주제 범위는 여성에 관한 역사 연구에 한정하였다. 단순한 역사기록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헌이거나 여성이 저술한 문헌은 제외하였다.

연구절차:

수집범위에 맞추어 수집, 복사한 각각의 연구문헌을 서지정보와 목차, 초록, 서론과 결론을 읽고 인용문헌 또는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문헌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학위논문이나 대부분의 학술지기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문헌의 내용이 파악되나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는 본문의 여러 부분을 탐독하였다.

단행본의 경우는 초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록대신 목차와 책의 표지 및 본문의 상당부분을 읽어서 마치 분류를 담당한 도서관사서가 일하듯이 도서의 주제를 파악하였다. 이때 문헌이 다룬 주제는 매우 협소한 분야를 포함하여 주제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전체문헌의 범위와 분포된 주제 분야를 감안하여 분류의 일반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통계를 보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8개의 분류항목으로 나누었다. 그 분류 항목은 교육(여성을 위한), 생활(여성의), 여성의 지위, 여성의 활동, 예술(여성중심시각, 교훈, 탄식류의 문학, 공예, 복식, 응용복식, 미술, 건축, 자수 등), 이론(일반론, 여성기사 역사론), 인물, 종교이다. 그 외에 한 두건의 문헌이 생산된 여러주제를 기타(형질인류학적 연구, 미용, 음식, 여성의 이름연구, 產俗, 등)항목으로 묶어서 모두 9개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통계 및 분석:

분류가 끝난 문헌리스트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내고 도표화하여 여성사연구의 전체적 추이와 방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 애초에 본 논문에서 의도한 시대별 분야별 연구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참고할 사항을 추출하였다.

제한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사연구의 계량적 측정과 연구동향파악 및 여성사연구 목적의 함의에 비추어 우리나라 여성사연구의 나아갈 방향제시에 치중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질적

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를 위한 기준의 연구와 더불어 여성사연구자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중요하나 본고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2. 여성사연구의 목적과 주요 과제

여성사연구의 목적은 구조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여성과 남성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남성위주로 되어있는 역사기록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그 공동의 역사참여를 복원하는데 있다.⁴⁾ 대부분의 주요한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정치사, 제도사, 전쟁사, 곧 남성 중심의 역사로 되어 있는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성의 역사 참여를 발굴하여 남성중심의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아 객관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실대로의 과거사를 후손에게 보여줌으로써 성별이 문제되어 인간이 차별을 받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자궁심의 원천이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거울이다. 이것이 잘못되어 여기서 오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여성은 비굴하고 남성은 오만하여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만들어 가는 오늘의 역사를 그르치는 일이 국가사는 물론 사회사, 가족사, 개인사에 허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그르침을 줄이려는 것이 또한 여성사연구의 목적이다. 앞으로의 역사를 명실공히 남녀 공동의 역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명이 여성사연구의 목적에 합유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남녀 양성의 참여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미래사를 위한 기반작업이기도 하다.

역사는 남녀 인류공동의 자산이다. 어느 개인이라도 자신의 자산이 진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사연구는 편협되지 않은 진실의 역사를 우리의 자산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성사연구의 목적은 자칫하면 여성들이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여성해방운동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질 수 있다.⁵⁾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의 무관심 내지는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 여성사연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그러한 협소한 생각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 여성사 연구목적의 근원은 하늘아래 만민이 평등하다는 인류공존의 명제를 실천하는 노력에 있다고 해석해야 옳다.

4)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전근대편,” *여성과 사회*, 3(1992, 4), p.315.

5) Joan Anker. “What Happened to the Women’s Movement? - An Exchange,” *Monthly Review*, Vol. 53, Issue 5(Oct. 2001), pp.46-48.

사람은 모여 사는 사회적동물이며 거기에 언제나 계급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급은 언제나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계급은 불평등의 원인이며 고통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의 모든 계급적 불평등의 극복은 극복되어야 할 갈등의 해소를 의미한다. 해묵은 계급으로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갈등, 인종간의 갈등, 갑자기 현실로 닥아 온 계급으로 세대 간의 갈등 21세기 유전학의 고도한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생학 신봉자들에 의한 사회적 편견과 갈등,⁶⁾ 등이 그것으로 여기에는 남녀 양성의 갈등이 지구 전역의 문제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남녀 양성의 갈등은 선진한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불평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계층화 현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사연구와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때, 그것이 매우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전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의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다. 쉽게는 일어난 사건을 직접 보거나 겪은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을 떠난다. 또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내용이지만 그 사건을 직접보거나 겪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로 변하는 것이 한계이다.

다른 하나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사료를 비롯한 증거를 대면서 해석하는 역사이다. 이런 역사는 정치적으로 조작되기 쉽다.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역사는 공정하게 사실 그대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전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기록에서 권력자의 관여를 배제하는 장치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한 장치마저 없어진 근대 이후 오늘의 우리 역사는 정치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의 반공에 관한 내용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기록자의 생각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 기록의 선별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채택될 가치가 적은 것이 기록되기도 한다. 기록자의 생각이란 기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철학 등 그가 삶에 대해 갖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방면에 대한 가치철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며 그러한 그의 가치철도는 그가 사는 사회가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졌는가에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다.

여성사는 공식 역사기록이 없는 삼국이전의 고대 사회의 여성의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 기록이 있더라도 김부식이나 정도전과 같은 유학자라는 착색유리(stained glass)를 통해서 기록된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사료를 참고하여 적은 이야기이거나 국왕과 지배층인 사대부가 여성 하위계층의 철학적 이론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목적을 달성한 조선사회의 이야기이다.

6) Ted Haistead, Michael Lind. "Un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ational Civic Review*, Vol.91(Spring 2002), pp.105-110.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의 증언자는 물론 없고, 정치이념으로 조작되거나 역사기록의 선별 작업에서 채택되지 못한 사실들을 복원하여 이야기 한다는 것은 보통의 추리와 상상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다. 아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도 힘든 작은 근거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어 그것을 토대로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상상하여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일이 여성사복원 작업이다.

그러므로 연구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사연구는 극한의 불모에서 진실을 거두어야 하는 과제이다. 연구방법의 개선이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모든 연역적 혹은 귀납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실험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남성중심의 정치, 제도사에서 혹은 사료가 비교적 많은 조선이후의 기록에서 여성의 사건을 끌어내어 추론하고 해석하는 일이 많았다. 또 여성사 연구자들이 해야 할 과제로 여성의 기여가 큰 개인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문예물, 미술, 일기, 자서전, 호적, 금석문 등을 탐색하여 여성사복원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⁷⁾ 연구방법의 개발은 이와 같이 여성사기술의 근거자료의 개발 뿐 아니라 다른 학문들의 연구방법을 차용하거나 응용하여 여성사연구방법을 개선, 연구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학문의 연구방법에서 힌트를 얻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이 문자나 그림으로 된 기록이외의 자료, 예를 들면 인류학적 자료의 발굴, 등 기록외적 자료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상과 추리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여성사의 이론은 다른 학문에 비할 데 없이 연약하다. 이론의 개발도 여성사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여성사적 역사의식의 발견, 명료화, 투철화 과정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의 모든 귀결은 평등한 남녀의 성 역할로 일구는 역사창조의 방향타적 이론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사연구의 과제로 우리의 여성사와 다른 민족 국가의 여성사와의 비교연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여성사는 서양의 그것에 비하여 늦게 출발 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여성사는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한 예로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의 에티켓의 변천을 연구 분석하여 계급이나 신분, 남녀 간의 예절의 모습이 어떻게 상급자와 하급자를 표현하였으며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밝히는 비교연구⁸⁾와 같은 것은 참고할만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연구는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전반의 포괄적, 범인류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성의 인권문제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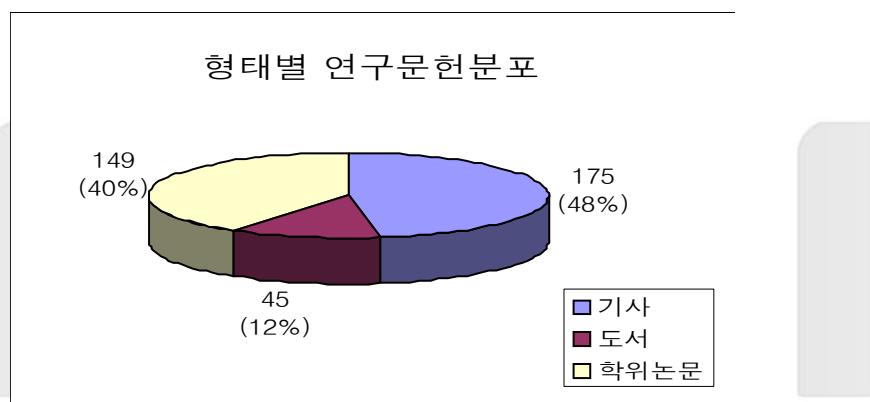
7)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 청년사, 1999), p.25.

8) Cas Wouters, "The Integration of Social Classes,"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29, No.1(Fall 1995), pp.107-124.

앞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철학이 그 사회가 어떠한 문화형태를 취하느냐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해석⁹⁾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화의 철학적 바탕이 되었던 성리학이 여성을 하위계층화 하는데 얼마나 크게 공헌하였는가를 떠올리게 하는 연구이다.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동양 제국의 여성사와의 비교연구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3. 여성사연구의 분석

조사 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술지기사 175건과 학위논문 149건, 단행본 45책으로 도합 369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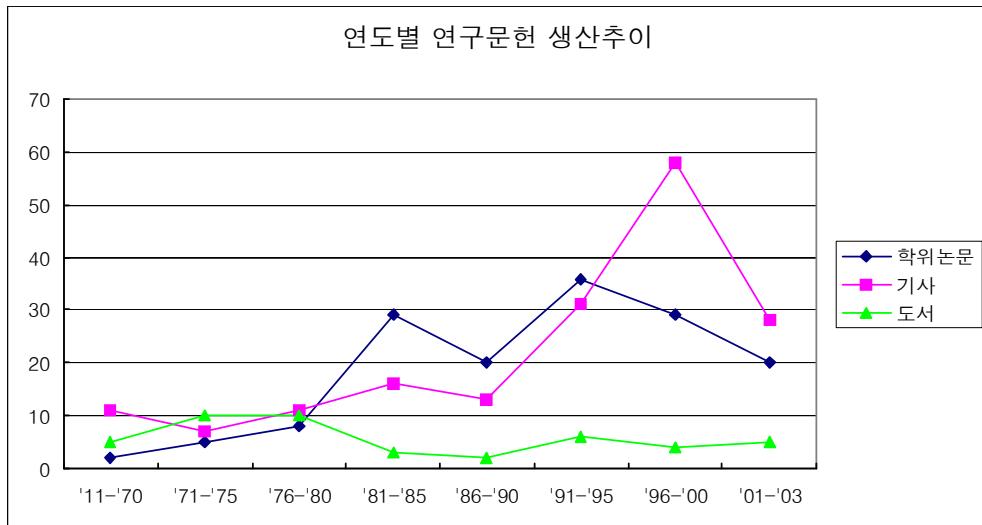
<그림 1> 형태별 연구문헌 분포

이 문헌들을 문헌생산 연도별로 보면 그림 2와 같다. 1980년대에 여성사연구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3년 여성개발원이 개원을 하면서 여성에 관한 연구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이전에 설립된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연구소(1960년 개설)나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1977년 발족) 등 여자대학의 개별연구소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대학원 학생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1980년대 후이다.

1990년대 후에는 여성분야를 담당하는 정부장관(제2)을 임명하는데(1988년) 이어 여성발전

9) Supakwadee Amatayakul, The History of Philosophy through a Feminist Magnifying Glass : Distortion or Clarification?(Ph.D. Dissertation, Th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3), 118 p.

기본법 제정(1995년), 여성에 관한 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립(1998년), 여성부 설치(2001년) 등이 크게 작용하여 여성의 가정 밖 활동의 신장은 물론 연구도 활발하여 졌다고 생각된다.



<그림 2> 연도별 연구문헌 생산추이

<그림 3>의 분야 분류는 전체문헌을 주제별로 나누어 각 주제 분야의 문헌 생산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류는 교육, 생활, 여성의 지위, 여성의 활동, 예술, 이론, 인물, 종교, 기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류 항목의 연구문헌들은 예술분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지위 자체를 거론한 연구와 교육, 생활,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으나 간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여성의 지위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연구들이다. 예술 부문의 연구는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수가 많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의 지위, 하위계층화, 인권탄압과 관련한다.

여성의 지위 이외의 항목에 분류된 대부분의 연구도 간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여성의 지위, 하위계층화, 인권탄압과 관련하는 연구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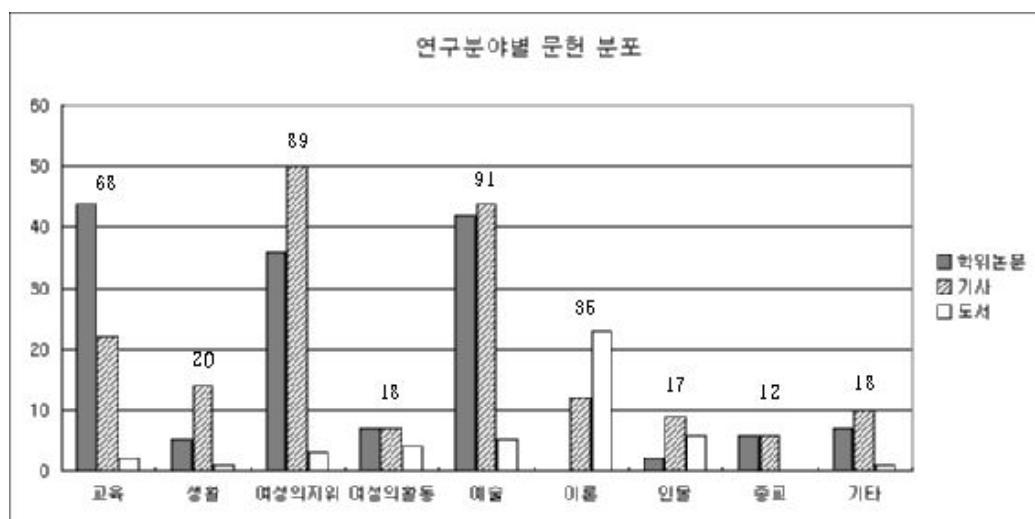
조선 전기 淫祠禁止策 연구¹⁰⁾라는 논문은 조선전기의 서민과 여성들의 신앙형태인 무속신앙을 금지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다룬 분야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종교 행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종교행사에 여성의 참여

10) 송리빈, 조선전기 음사 금지책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67 p.

를 금하기 위해 행사 자체를 금지시킨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마을 축제의 성격을 갖는 집단적 대규모의 야제(野祭, 洞祭)에서 남녀노소가 모여 술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다가 생길 수 있는 여성의 실질, 풍기문란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법적인 집회로 간주하고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에 의거하여 탄압하였다.”¹¹⁾는 것이다.

한국여성교육이념의 理氣哲學的 연구¹²⁾는 조선시대 이기철학과 여성교육의 관계를 연구한 학위논문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조선시대 이기철학의 정신이 여성을 인격으로 취급하여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곧 여성의 지위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사회의 국면은 여성과 남성의 관여로 엮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테마도 여성에 관한 것이라면 여성의 예속되어 있는 한 여성의 지위와 고리를 맷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가장 선호되는 연구 테마는 교육, 여성의 지위, 예술 분야이다. 예술 분야는 문학작품의 분석, 공예, 미술, 자수에서의 여성성의 발견 및 분석, 복식, 건축에 관한 것이며 문예물 이외의 테마에서는 현대의 시각예술로의 응용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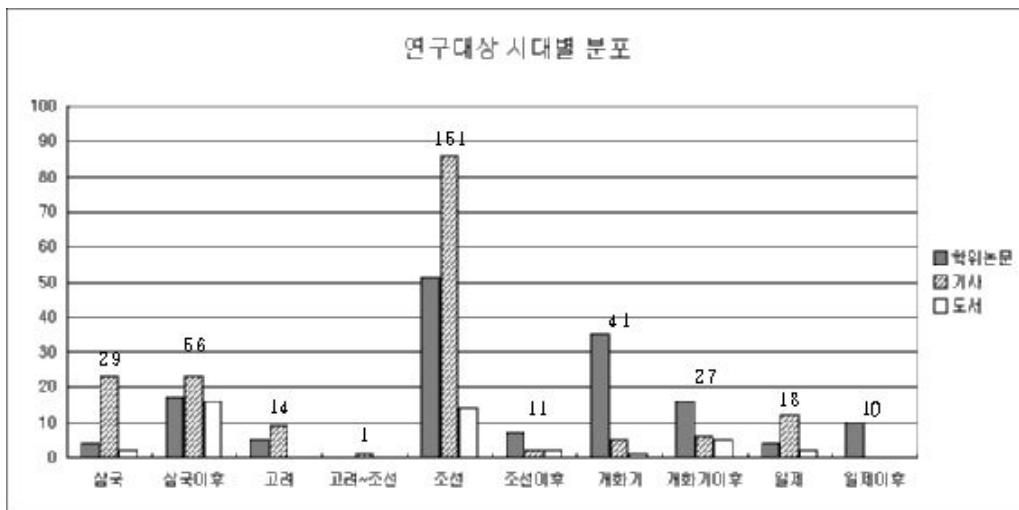
<그림 3> 연구분야별 문헌 분포

연구대상 시대별 문헌 분포는 그림 4에 보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생산되었고 고려 시대의 연구가 적다. 개화기에 여성교육기관들이 설립되어 이시기의 교육분야의 학위논문이 많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사항은 학술지 기사로 연구자들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그 이후보다 그 이전시대에 더 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

11) 송리빈, 상계논문, p57.

12) 정세화, 한국여성교육이념의 理氣哲學的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180 p.

성의 지위나 인격적 대우가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복원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사료의 부족이라는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이전의 여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연구대상 시대별 문헌 분포

다음의 그림5는 각각의 연구대상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를 각 시대별 100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개화기와 개화기이후의 교육분야 연구가 많은 것은 이 시기가 길지 않은 시대이면서도 사료로 쓰일만한 문헌이 많고 여성교육을 위한 사학들이 많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개화기 이전까지는 여성을 위한 공식교육이 없었음에도 교육관련 연구가 행해진 것은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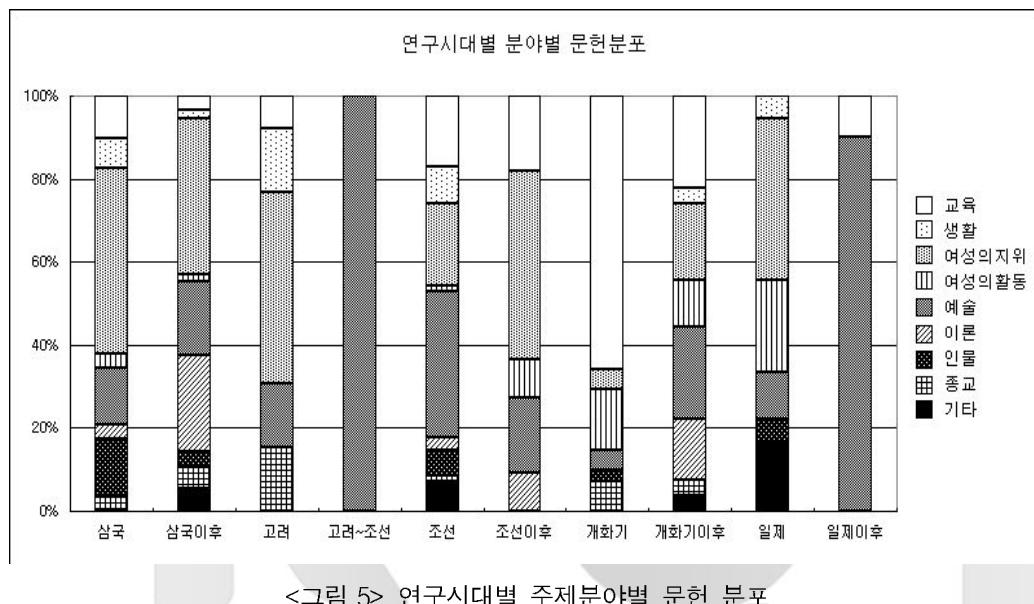
그림 5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이라고 하겠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사연구가 여성의 지위, 하위계층화, 인권탄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여성의 지위를 주제로 연구한 문헌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예술분야의 상당수의 연구는 여성문예물에 관한 연구로 고려 및 조선시대에 걸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여성중심의 시각, 교훈 혹은 탄식류의 내용들로 너무나 뚜렷하게 여성의 지위에 연결되는 연구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예술 분야에서는 일제시대와 그 이후에도 생존하여 활동한 여류문예물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그 외에 재미있는 현상은 여성의 활동이 후대로 갈수록 활발하다는 점이다. 필자의 견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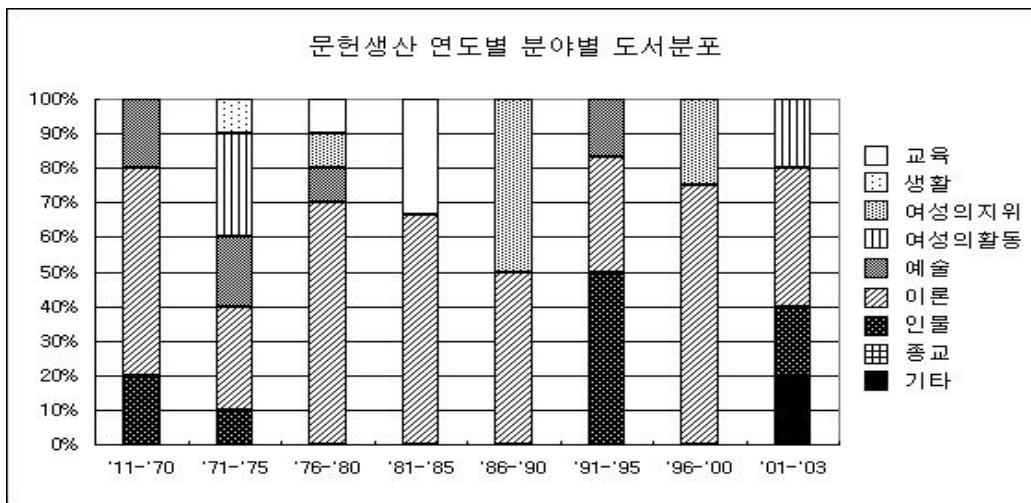
는 그 이전시대에도 여성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한 일이 허다하였을 터이나 사료가 부족한 가운데 아직 발굴해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활동은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인물연구와 구별하여 설정한 항목으로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활동이나 인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고려시대를 포함하는 그 이전시대에는 여성의 종교에 대한 연구문헌이 상당수인 반면 불교는 물론 토속 종교행위 마저도 탄압한 조선시대에는 종교에 관한 연구가 없다.

기타항목은 미용, 머리 꾸밈, 음식, 산속, 여성저술, 여성이름연구 등 한두 건의 문헌이 조사된 다양한 주제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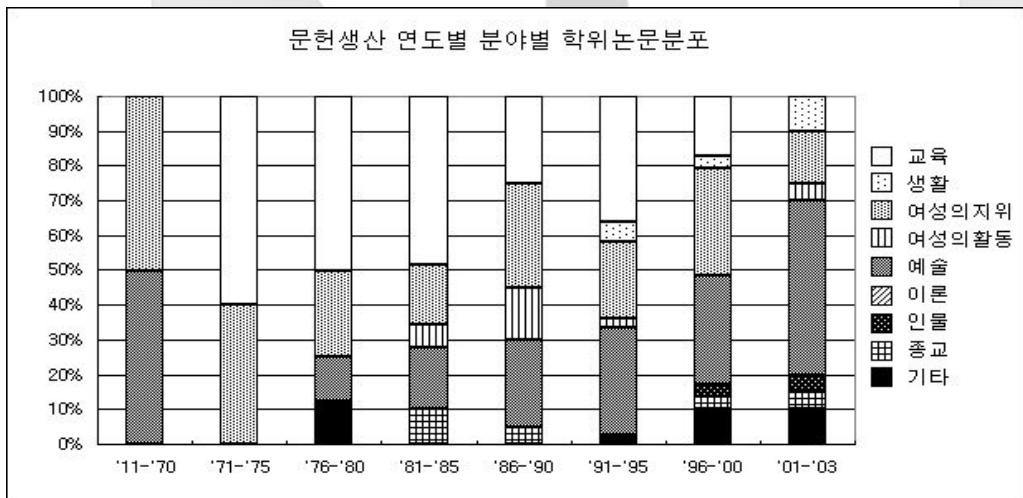
<그림 5> 연구시대별 주제분야별 문헌 분포

<그림 6>은 도서의 연도별 분야별 문헌생산 분포이다. 문헌형태중 도서는 2003년까지 45종이 출판 되었으며 이론서가 가장 많다. 이 이론서들은 대부분 단선적 서술적인 역사 기술서들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주제의 단행본들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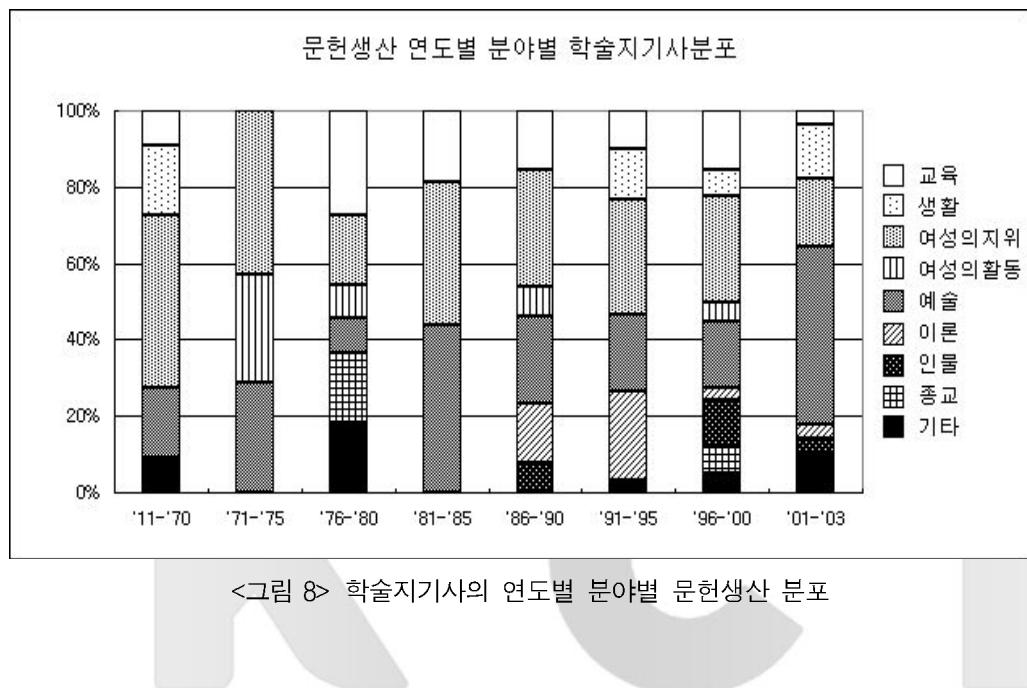
<그림 6> 도서의 연도별 분야별 문현생산 분포

<그림 7>은 학위논문의 문현생산 연도별 분야별 분포를 나타낸다. 학위논문은 원래 교육 분야에 연구가 많으나(그림 3 참조) 연도별 분포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비율이 줄고 있다. 반면 예술 분야의 연구는 증가추세이며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학위논문의 연도별 분야별 문현생산 분포

<그림 8>은 학술지 기사의 연도별 분야별 문헌생산 분포이다. 학위논문에서와 같이 교육 분야 연구비율은 점차 줄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및 예술분야의 연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도서나 학위논문에 비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도서나 학위논문과 유사하게 최근으로 올수록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연구테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생활사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인물 연구도 근래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4. 연구자상황

다음의 표는 여성사 연구자 상황을 나타낸다. 이 표에 의하면 연구자 총이 두텁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5건 이상 문헌을 생산한 연구자가 2명이고 학위논문을 포함해서 5건 이상 생산 한 연구자가 11인에 불과하다. 전체 조사된 문헌 369건의 $\frac{1}{2}$ 에 해당하는 문헌은 3편이하의 문헌을 생산한 연구자들이 생산하였다는 계산이 된다. 석사학위논문만을 발표하고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은 연구자 이외에도 여성사부문의 논문을 곁가지 연구로 생산한 역사학자, 여성학 연구자 또는 기타 학문연구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여성사 연구는 아직 폭넓은 연구 층(community)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학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여성사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고는 하나 여성학회가 설립된 것은 1984년이고 2004년 6월에야 여성사학회가 설립될 예정이라는 점도 한국여성사연구 층의 형성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연구자 상황

연구빈도	전체 (문헌수/연구자수)	도서 (문헌수/연구자수)	학술지기사 (문헌수/연구자수)
15건 이상	46/2	0	46/2
10건 이상	37/3	0	33/3
5건 이상	56/11	1	47/7
4건	39/12	0	36/9

5. 요약 및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사 연구문헌을 수집하여 시대별, 분야(주제)별로 통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연구의 동향과 추이를 알아내고 강조되어 온 부분과 앞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성사연구문헌의 수집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역사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57,030건(2004년 3월 현재)의 한국사 문헌에서 여성사문헌을 선별하고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이라는 여성사관련홈페이지의 연구문헌을 검색하여 수행하였다. 수집된 모든 문헌에서 중복문헌을 검토하여 제외하였다. 총 수집문헌은 369건으로 학술지 기사가 175건(48%), 학위논문이 149건(40%), 도서가 45건(12%)으로 학술지 기사가 과반에 가까웠다.

연구범위는 연구대상 시기를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일제 말기까지로 하고 문헌 발생시기는 2003년 말까지로 하였다.

연구절차는 수집문헌의 내용을 파악하여 전체문헌의 범위와 분포된 주제 분야를 감안하여 8개의 분류항목으로 나누고 한 두건의 문헌이 있는 주제 분야는 기타로 둑어 9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분류된 연구문헌리스트를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내고 통계표에 의거하여 도표를 작성, 통계표와 도표를 토대로 여성사연구의 추이와 경향을 분석하였다. 주

제 분야로 설정된 항목은 교육, 생활, 여성지위, 여성활동, 예술, 이론, 인물, 종교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연구문헌 발생이 크게 도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연구문헌의 발표통로로 핵심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학술지기사 발행 추이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다.

연구가 많은 분야는 교육, 여성의 지위, 예술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학술지기사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가장 선호하는 연구 테마였다. 여성의 지위연구가 여성사연구의 중심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시대별 문헌분포는 조선시대가 가장 많고 고려시대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학술지기사에서는 조선시대만을 제외한다면 사료의 부족으로 연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선이전 시대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사료가 풍부하여 연구여건이 좋은 조선시대 이후에 대한 연구보다 많은 편이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가 땅에 떨어진 조선시대 이후 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보장되었던 그 이전시대의 여성의 모습을 복원하여 원래의 한국여성의 입지를 천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대상 시대별로 어떤 분야가 연구되었는가를 검토한 결과, 연구자들은 여성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화기 이전까지 여성을 위한 공식교육이 없었음에도 연구자들은 공식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시대의 교육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이라고 하겠다. 전통문화예술의 복원이라는 취지에서 역사 속의 시각예술을 현대인의 기호에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을 만들려는 취지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성사연구가 여성의 지위, 하위계층화, 인권탄압에 간접적 혹은 암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여성사연구의 목적이 여성의 참여한 역사를 발굴하여 재해석하고 새로운 남녀공동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 여성의 지위를 주제로 연구한 문헌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예술분야의 상당수의 연구는 여성문예물에 관한 연구로 고려 및 조선시대에 걸친 연구가 많았고 전통문화예술의 현대적 응용을 위한 연구가 최근으로 올수록 많아지고 있다.

여성의 활동이 조선이후 후대로 갈수록 활발하다. 여성의 지위가 심하게 낮아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이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가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친 사람들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론연구는 단선적이고 서술적인 역사서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인물연구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짧은 기간이나 일제시대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성의 비교적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고려 시대의 개별여성에 대한 인물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두드러진 여성인물이 오백년 고려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가?

여성의 종교에 대한연구는 고려시대를 포함하는 조선 이전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수인 반면 불교는 물론 토속 종교행위 마저도 탄압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무속적 종교행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 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선시대는 여성의 종교에 대한 연구가 있을 만한 주제이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무시되는 인격의 소유자이며 그럴수록 종교적 위안과 희망을 찾아보려는 용트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기타항목은 미용, 머리 꾸밈, 음식, 산속, 여성저술, 여성이름연구 등 한두 건의 문헌이 조사된 다양한 주제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은 것으로 후대로 올수록 연구테마가 다양해지는 추세와 더불어 조선시대와 그 이후 시대 연구에서 기타 항목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문현형태별로 볼 때, 단행본의 출판은 이론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 인물에 대한 연구서가 있으나 단행본은 원래 출판건수가 적기 때문에 인물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은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꾸준히 예술분야를 연구 테마로 선호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대신 교육 분야의 연구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학술지기사의 연구경향은 가장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는 연구대상 주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연구문헌이 많은 교육, 여성의 지위, 예술 분야의 연구가 각기 특징을 보이는데, 교육에 대한 연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학위논문에서 와 같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예술분야의 연구도 상승세에 있다. 또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생활상을 연구한 문헌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여성사연구는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역사학자 혹은 여성학자들의 곁가지 연구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래의 연구자 층(community)은 두텁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면의 학문 발전을 주도할 학회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결론

여성사연구의 목적은 우리민족의 과거의 발자취에서 여성의 참여를 발굴하여 무시되어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을 찾아 재해석하고 기록하여 남녀양성이 평등한 입장에서 진술하는 공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간의 우리나라 여성사연구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여성사 연구의 추이와 경향은 어떠한가를 여성사연구문헌의 계량적 측정

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부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사연구는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하위계층화의 원인, 방법, 실태, 결과 또는 여성에 대한 인권탄압의 사실(史實)을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구명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중심주제가 다르더라도 연구의 흐름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역사상의 사실이 그러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논조의 연구는 학술지기사를 생산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현재의 여성의 법적인 혹은 실질적 지위향상을 위해 현재의 불평등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잘못됨을 지적해서 고쳐나가는데 기여하는 유형의 연구라고 생각된다.

둘째 역사적으로 여성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밝히는 측면에서 서양의 여성사에는 여성 개인의 전기류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 여성사에는 인물연구가 적으며 특히 고려조의 인물연구는 더욱 없는 편이다. 여성개인의 활동과 구별하여 조사된 여성의 활동도 조선시대 이후시기에 대한 연구가 눈에 뜨일 정도이다. 여성이 우리역사에 기여한 내용을 복원하는 데는 여성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활동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성이 주로 몸담고 살았던 생활사 방면의 연구에 힘을 기우리려는 시도가 1990년대 이후 학위논문, 특히 학술지기사에서 뚜렷하다. 생활사 방면의 연구에 눈을 돌리는 것은 여성사연구자들의 공통된 안목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많은 연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도서나 학위논문, 학술지기사에서 다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한 주제가 연구테마로 선정되고 있다. 학위논문은 이미 1980년대부터 연구주제 다양화현상이 뚜렷하였다. 학술지기사는 다른 형태의 문헌에 비하여 원래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연구테마로 더욱 더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속에서 여성이 역사창조에 기여한 그 무엇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른 부문에 비하여 교육면에서의 양성평등은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진 편이다. 본 여성사연구의 문헌발생추이에 의하면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즉 여성사연구의 태동기부터 주요 테마로 등장하였던 주제이고 가장많이 연구된 3대 주제(여성교육, 여성지위, 예술)중의 하나이다. 교육의 양성평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구자들이 여성교육을 중시하고 전력하여 연구하여 발표하고 선포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헌의 분류를 위해 연구대상문헌의 주제를 파악하는 동안 각각의 문헌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이 때 나타난 우리나라여성사연구의 유형 혹은 연구관점은 역사 서술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차별의 기원, 방법, 철학적 근거 등을 밝히고 이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논지의 여성운동사적 연구문헌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논조의 여성해방운동사적 연구는 그 주장이 극히 타당할지라도 여성만을 옹호하고, 여성의 하위계층화가 남성과의 상대성에서 비롯되었

음에 비추어 남성을 격원시 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서양에서는 여러 부면의 사회적 계층에서 오는 차별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관점의 일환으로 여성사를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인종간의 차별적 갈등,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우생학적 차별과 갈등,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남녀 양성의 문제, 양성의 역사, 즉 여성사도 연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사연구에서 앞으로 이러한 관점의 연구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다른 나라 여성사를 섭렵하고 비교 연구할 때 그들의 방법과 이론을 우리나라 여성사연구에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종내에는 역사연구의 방법과 이론도 한층 발전시키고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하는 동안 단순적이고 서술적인 역사기술만이 아니라 역사의식을 끌어내고 미래사에 대한 방향타적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들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현

송리빈. 조선전기 음사 금지체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이옥석. 한국근대여성사에 관한 연구사 : 1876~1945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정세화. 한국여성교육이념의 理氣哲學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 청년사 1999.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근대편.” 여성과 사회, 5(1994, 6), pp.297-327.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전근대편” 여성과 사회 3(1992, 4), pp.315-344.

Anker, Joan. "What Happened to the Women's Movement? - An Exchange." *Monthly Review*, Vol. 53, Issue 5(Oct. 2001), pp.46-48.

Haistead, Ted and Michael Lind. "Un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ational Civic Review*, Vol.91(Spring 2002), pp.95-114.

Supakwadee, Amatayakul. The History of Philosophy through a Feminist Magnifying Glass : Distortion or Clarification? Ph.D. Dissertation, Th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3.

Wouters, Cas. "The Integration of Social Classes."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29, No.1(Fall 1995), pp.107-124.